



세계화를 대비하는 대학경영

- 건강 과학 종합대학,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고 점 재 | 포천중문의대 기획처장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경제 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고등교육 수요의 확대에 비례하여 다양한 학과들을 백화점식으로 개설, 운영해 왔다. 이러한 대학 규모의 팽창이 국민 교육 수준을 올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배출에 기여해 온 것은 모두들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비슷한 학과와 교육내용을 가지고서는 다양성이 요구되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 배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일등 국가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선진국의 일류 대학을 벤치마킹하면서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I. 우수한 인재양성에 중점을 둔 대학 경영

포천중문의대는 차병원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니만큼 건강 과학 종합대학으로의 특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 부분의 특성화를 통한 세계화된 인재 양성, 경쟁력 있는 의학 분야 개발, 세계적인 연구 업적 창출, 진료 무대의 세계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천중문의대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설립의 기본 방침이다. 이곳은 개교 때부터 의학부 신입생들에게는 6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간호학부와 보건학부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는 설립자인 차경섭 이사장의 남다른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사장 자신이 장학금으로 공부해 의사가 된 만큼 후학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다.

장학금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해 통학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1인 1대의 컴퓨터 교육이 가능하며, 최근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현대 감각을 살린 멋진 건축 설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멀티미디어실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최첨단 도서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학습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어학 실습실, 실험 실습실 등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또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분당 캠퍼스는 헬스클럽과 수영장 시설까지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졸업생 전원이 취업 걱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원하는 학생들은 재단 병원에서 100% 수용할 예정이며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엔 모교 교수로 우선 채용되는 기회도 주어진다.

II.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경영 방침

우리나라가 OECD가입 이후 통상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현재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향후 2~3년 이내에 의료 시장 개방으로 선진국의 막대한 자금,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국내 의료 시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포천중문의대의 경영 방침은 의학 교육의 선진화와 특성화를 통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렇게 훈련되고 교육된 사람은 포천중문의대 국내의 산하 병원 및 연구소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의학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부속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의료 기관으로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 재단의 수익을 학교에 돌려 줄 수 있는 여력이 많아 학교가 추구하는 발전 목표와 건학이념에 충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포천중문의대의 경영 이념은 의학 분야에서 특징적인 인재 교육을 통하여 독창적인 의료 분야를 개발시키고 세계화에 대비하는 의학도를 양성하는 것이다.

III. 교육 부분 특성화를 통한 세계화된 인재 양성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대학의 주요한 설립 이유이자, 향후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포천중문의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

동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PBL, 영어 강의, 2개 외국어 구사 능력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1. PBL(Problem Based Learning)

포천중문의대는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모든 학생들을 국제적인 의학자로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문제 해결 중심의 선진형 교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명 PBL로 불리는 이 방식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과제가 중심이 되는 기존 대학들의 학습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교수가 제시한 학습 개요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한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또 해결 방법까지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측은 PBL 시스템을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마다 학생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해외 연수 팀을 하와이 대학에 파견하고 있어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경험을 주고 있다.

2. 영어 강의(일반 대학의 6배)

이와 더불어 학교 측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교과는 역시 외국어다. 일반 대학의 6배에 달하는 영어 시간은 의사 소통 위주로 시작해 점차 의대생에게 필요한 영어 쓰기와 세미나 및 발표 수업 등으로 확대시킨다. 수업을 듣는 학생을 5명으로 국한시켜 외국 출신 교수를 비롯해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과 함께 영어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는 모든 학생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손색이 없을 만큼의 자질을 키우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의학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의사의 기본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3. 국제적인 의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1인 2개 외국어를 의무교육화

영어와 동시에 제 2 외국어 역시 필수로 공부해

“

일명 PBL로 불리는 문제 해결 중심의 선진형 교과 시스템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과제가
중심이 되는 기존 대학들의 학습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교수가 제시한 학습 개요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한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또 해결 방법까지 강구하는 것이다.

”

야 하는데,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 수업이 3학기 동안 진행된다. 이는 포천중문의대가 의대로서는 드물게 한의학 과목을 개설, 동·서양 의학에 대한 폭넓고 조화를 이룬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동서양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와 더불어 교수 1명이 학생 1명을 맡아 후견인으로서 학업과 전공 선택을 지도하는 담임교수제도 포천중문의대의 차별화된 또 다른 특성이다.

이처럼 포천중문의대가 건강 과학 종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학교 측의 열정과 더불어 모든 교수진이 현직에서 활동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측 병원에서 철저하게 실습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V. 경쟁력 있는 의학 분야 개발

포천중문의대는 성광의료재단 차병원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차병원이 명성을 자랑하는 산부인과, 불임, 유전학, 대체의학 분야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더욱 특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그동안 수차

례의 국제 Workshop 및 심포지움을 국내외에서 주관하고 개최하여 많은 국가에서 참석학 의학자들에게 포천중문의대의 교수진과 연구 업적을 알리고 Workshop을 통하여 의료 기술을 전수한 바 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토록 하여 국제적인 의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학생 교육에 한의학, 기공, 선무, 대체의학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서양 의학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타 의과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의료재단 산하 한방병원, 대체의학대학원의 훌륭한 교수진이 이러한 교과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한방 협진, 대체의학 고위자과정에 본교의 교수진의 직접 참여로 새로운 형태의 독창적인 의학 분야 개발을 꾀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신개념 의학 분야 개척을 독려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독창성 있는 신개념 의학 분야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것은 향후 포천중문의대가 지향하는 세계화 추진 과제 의 하나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 프렌차이즈 병원을 설립시 경쟁력 있는 치료 분야로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

학생 교육에 한의학, 기공, 선무, 대체의학 등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서양 의학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타 의과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의료재단 산하 한방병원, 대체의학대학원의
교수진이 이러한 교과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

V. 세계적 연구 업적 창출을 위한 노력

1. 대학원 활성화

지난 2001년엔 세계 최초의 대체의학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개설하였으며, 2002년에 일반의학 대학원과 생명과학전문대학원에서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대체의학대학원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체의학 성과를 흡수하고 동양 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룩한다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현재 대체의학대학원에는 많은 현직 양방 의사들이 대거 지원하여 대체의학 연구에 국내 의료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4개 대체의학 전문가 교육과정(동종요법과정, 대체의학전문과정, 만성통증전문과정, 동서의학비교연구과정)에는 많은 관련 인력들이 참여하여 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제로 환자 치료에 응용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21세기 생명공학 연구의 선도자 역할 자임

포천중문의과대는 대학 산하에 세포유전자치료 연구소와 유전학연구소, 기초의학연구소, 한의학 연구소, 대체의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21세

기 국가적 경쟁력이 될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는 줄기세포 전문가인 총 11명의 교수진과 30여 명의 연구원, 그리고 8개 팀으로 구성된 임상연구진으로 완벽한 연구 환경을 가지고 있다. 1998년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 배아줄기세포주와 성체줄기세포주를 이용한 특성 규명과 특정 세포 및 조직으로의 분화 유도연구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시대를 이끌어갈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분당차병원 옆에 건립 중인 줄기세포이식병원과 연계해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여 세계적인 줄기세포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것이 잘 정착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줄기세포 연구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며, 그 수익은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다.

3. 연구 업적의 사업화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난치병 치료, 유전병 치료, 불임, 암진단 및 치료 등에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아 왔으며, 특히 생식의학 분야에서는 수없이 많은 연구 논문 발표를 하였고, 그 연구 업적의 성과로 미 시사 주간지 Time 지를 비롯한 NewsWeek 지 등에 여러 번이나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에 여러 가

지 질병 치료와 진단과 관련하여 우수한 교수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벤처 사업화 시키고자 현재 차바이오텍, 알바이오테드, 차케어스 등 의료 관련 벤처 회사를 설립하여 줄기세포 개발, 각종 진단 키트 및 백신 개발, 의료 정보 제공 등에 많은 업적을 내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연구 업적과 수익은 고스란히 학교 발전에 쓰여지고 있다. 또한 이에 종사하는 주요 연구 인력으로서 포천중문의대 생명과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졸업 후 연구원으로서도 계속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VI. 전 세계를 진료의 무대로 삼을 수 있는 기반 구축

1. 학교 산하 국내외 부속 병원, 학생들 향후 진로 걱정 없어

포천중문의대 산하 병원으로는 이미 4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특히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 강남 차병원을 비롯해 분당 차병원과 구미 차병원, 대구 여성차병원, 양한방 협진시스템으로 한방과학화를 이루는 대공헌하고 있는 분당 차한방병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강남과 분당, 구미 병원의 증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세계 최고의 병원 건립을 위한 기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실습과 교육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졸업 후에도 확실한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과 공동으로 뉴욕 CC 불임연구소를 개설해 국내 연구진을 파견하고 있고, LA에도 불임치료 센터를 개원하여 미국 내에서도 불임치료 분야에 명성을 쌓

아 가고 있다. 이밖에도 UCLA, 캘리포니아 어바인 의대, 컬럼비아 대학, 호주 모나시 대학 등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교환학생, 교환교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더 넓은 세계의 의학 교육 기회를 제공 중이다. 이 같은 여러 특전은 의료인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과정을 학교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겠다는 학교측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2. 건강 과학 종합대학 면모 갖추고 향후

10년 이내에 10개국에 병원 지사 설립

2003년에 첫 의학부 졸업생을 배출하는 포천중문의대는 설립 당시의 목적대로 건강 과학 종합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의학이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더 활발한 세계 시장 진출에 우리 대학이 앞장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병원의 규모도 점점 확대할 방침이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10개국에 병원 지사를 구축해 더 많은 인재를 폭넓게 수용할 계획이다.

VII. 결론

포천중문의대는 세계화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훌륭한 인재의 양성을 기반으로 연구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 창출되는 모든 수익은 학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